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11.(금) 14:00 배포: 2025. 7. 11.(금) 08:30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일꾼으로”...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 가져

- 국민권익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취업비자 발급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 사업의 인력난 해소,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사업)와 같은 국제교육 협력 등의 목적으로 모집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현재 총 225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7개교 35명), 전라남도교육청(5개교 77명), 경상북도교육청(8개교 113명)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6년에는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교육청 이상에서 모집 예정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부모 등을 따라 동거·동반 비자(F계열)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아닌 ‘일반 연수 비자(D-4)’로 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그러나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취업비자(E계열)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 국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양질의 유학생을 모집하여 3년간 국가 예산으로 선진기술 학습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익힌 기능인력을 국내 산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와 늘어나는 지역 산업체의 빈 일자리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폭넓게 청취하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한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가시화된 지방소멸, 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	책임자	팀 장	윤효석 (044-200-7209)
		담당자	조사관	고명관 (044-200-7107)